

“韓國的인 建築具現을 위한 哲學에 基本根幹을 뒤야 할 시기”

朴 商 浩 / 석림건축

누구나 연말이라는 문턱에 서면 지나온 한해를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된다.

특히 올해는 建築界에 많은 행사가 있었고, 건축과 직접 간접으로 관련 있는 일과 시련들이 겹쳤던 한해가 아닌가 생각된다.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불황에서 허덕이는데 우리의 경제는 건축과 건축으로 계속 성장하여 이제 GNP가 1인당 1,700달러 선에까지 올랐으며 세계 속의 한국으로 빛을 내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아시아 속의 한국은 더욱 중요한 地政學의 위치에 처해 있게 된 것이다.

(必要가 發明을 낳는다)라는 말이 있다.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노력 해야 하고, 위험한 경제에 와 있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와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은 필연의 사실이다.

바다와 강물이 닿는 곳에 고기와 조개류가 많은 것처럼 民主와 共産이 닿는 곳에 빛이 照射하고, 그럼으로써 여기에 초점이 오는 것이며 우리의 땅에 스포트 라이트가 돌려질 때 세계의 이목이 쏠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행인지 불행인지 이렇듯 긴박한 상황 속에서 특수조건에 대한 적응능력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가운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그토록 많은 행사와 사건들이 있었고 또 계속 있을 것이다. 역사적인 斷層面에서 볼 때, 이러한 시기가 우리의 의식개혁·지식발전·경제성장 등 多次的인 관점에서의 同時發展의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닐까?

많은 일들이 복합적으로 닥칠 때는 虛와 實이 생기기 쉬우므로 이제 한해의 마지막 문턱에서 반성과 분석의 자세로서 再吟味하여 본다.

지난 한해의 건축관계 중요 행사로서는 국제적인 행사와 관련된 올림픽을 대비한 건축시설물의 각종 공모와 아시

안게임 준비를 위한 선수촌·경기장의 공모,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독립기념관의 아이디어 현상공모, 목동지구의 도시설계 공모 등이 있었으며 건축사협회로서는 협회회관의 공모가 있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일들에 대한 立志와 發意의 의식을 새로운 창조적 조형의식으로 탈바꿈하여, 자손만대에 안녕과 번영이 있도록 건전한 도시 환경과 주거환경의 조성을 위한 책임감을 의무적으로 갖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일들의 시련들을 극복하기 위해 충남 천원군 목천면에 민족의 정신적 基柱인 독립기념관의 기틀을 박게 된 것이다.

더우기 근년에 와서는 工業化 사회에서 脫工業化社會, 즉 정보사회·전자기술의 고도화로 과거의 발전속도보다 가속도로 발전하는 현상은 곧 오늘의 나의 눈앞에, 나의 피부와 우리 사회·정치·경제에 까지 밀어 닥치고 있다. 그럼으로써 하루빨리 배워야 하고 이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쟁사회에서 낙후되고 말 것이다.

과거의 배운 생각만 가지고 혹은 그때의 경험만으로는 처리될 수 없는 많은 新技術 체제, 운영방식 등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가열된 속도로 밀어 닥치고 있다. 건축물의 고층화·복합성, 설비의 고도화, 省에너지화 건축 등이 우리의 두뇌 의식과 설계수법에 많은 변혁을 가져오게 한다. 이제 건축 각계의 단합과 건축인 각 세대간의 장벽을 없애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이 땅에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후회없는 유산을 남겨야 할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

좋지 못한 사건들이 우리의 마음에 원한과 상처를 남겼던 한 해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정치적으로는 KAL機 사건·아웅산사건, 국내 건축경기와 관련된 명성사건·영동개발사건·대구 광명

사건 등도 반성해야 할 것이다. 더우기 최근에 와서는 해외건설관계의 자금회전 부진 등으로 좋지 않은 소문 등이 우리의 마음을 조이게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러한 시련들을 딛고 일어서 계속 성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일년이 십년 같았던 슬한 시련들은 값진 경험, 밀도있는 산지식의 축적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제 우리 건축인들은 이러한 경험과 비극의 관찰을 토대로 하여 새로운 각성으로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를 명백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建築士協會發足도 성년이 다 된 18년이 지났으며, 1980년도 후반과 2,000년대를 향하여 자라나고 있는 이 꿈나무에 영양분을 주어 土質의 관리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최근 본의 아니게 일부 주거 시설을 포함한 소규모 시설의 설계·감리 분리 실시에 따른 지역간·지방간 또는 도시간의 회원 상호간에 지역적인 장벽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노파심이 생기며 建築士로서의 일관된 의무를 다하지 못할까 하는 우려마저 있는 것이다. 내년에는 정상화를 기대하여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할 일, 내가 할 일들을 생각하고 세계 속의 한국을 심는 일에 注力해야 하며, 한국적인 것, 민족적인 특징이 있는 건축구현을 위한 철학에 基本根幹을 두고 반성과 자각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自己力量의 배양과 부단한 신기술의 습득, 정보의 입수로 항상 공부하는 자세를 갖춰 새로운 세대, 후손들에게 부끄러움 없는 建築文化유산을 남겨주기 위해 오늘 나의 할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겠다. 그러한 발전을 새해에 기대해 본다. (*)